"'우리는 원팀'…젊은 패기로 PO 간다"

핸드볼 H리그 개막을 앞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18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기자단 미디어데이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2024-2025 핸드볼 H리그 필승 출사표

'즉시 전력감' 연지현·골키퍼 이민지 가세 경기력 보강
신구 조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부상없는 완주 최우선
'광주'만의 색깔로 코트 투혼 발휘 새로운 도약 이룰것

"광주도시공사만의 탄탄한 팀워크로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하 광주도시공사)이 18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필승 출사표를 던졌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지난 시즌 부진했던 성적과 침체됐던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강도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와 기존의 젊은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만년 꼴찌팀에서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코트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주포 강경민의 이적과 원선필 등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악재가 겹치면서 7위로 시즌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신인 드래프트로 연지현(PV), 김지선(CB), 조연서(RB)를 영입했다. 신구 조화로 원팀을 만들어 스피드 있는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전 선수 부상 등으로 약세였던 피벗(PV) 포지션 강화를 위해 즉시 전력감인 연지현을 영입했고,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이민지를 영입해 FA 박조은 이탈에 따른 빈자리를 메웠다.

오세일 감독은 "부상없는 완주가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시즌은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과 새 얼굴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송혜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백업진도 구축된 만큼 객관적인 전력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승미가 은퇴하면서 주장을 맡은 서아루는 "선수단이 새로 꾸려지면서 8개 구단 중 가장 젊은 팀으로 거듭났다. 광주만의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개막을 2주여 앞두고 19일부터 24일까지 대구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전지훈련기간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팀워크를 조율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광주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간 후 개막을 맞는다.

오세일 감독은 "시즌을 대비해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등 세부적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2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지난 시즌 개막전 상대였던 경남개발공사와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개막전부터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오세일 감독은 "팀이 새롭게 거듭난 만큼 개막전은 반드시 승리하겠다. 첫 단추를 잘 꿰매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수들이 광주의 이름으로 코트에서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개월간 21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1월25일(서울시청), 1월30일(대구시청), 2월2일(부산시설공단) 3차례 홈경기도 예정돼 있다. /박희중 기자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2024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단체 부문 체육진흥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상' 수상

생활체육단체 부문 선정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2024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단체 부문 체육진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등을 선정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광산구특화형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 자치구 유일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전 종목 상해보험 가입,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한 장애인스포츠종목 홍보부스 확대 운영, 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재원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로로 박병규 광산구청장(광산구장애인체육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해도 광산구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비롯 타시·도의 모범사례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2024 FIFA '올해의 선수'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24'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된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인 비니시우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과 미디어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하는 '올해의 남자 선수' 부문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48점을 따내 로드리(맨체스터 시티·43점)와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37점)을 따돌리고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AFP=연합뉴스

일본 가고시마에서 동계 전지 훈련중인 전남축구협회 U11대표팀(왼쪽)과 U14대표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축구협회 U11·U14대표팀, 日 가고시마 전훈

12-19일…교류전·가고시마 U12, U15 AG국제컵 참가

전남축구협회가 글로벌 축구 인재를 발굴·육성해 전남축구 비상을 꿈꾼다.

매년 동·하계에 축구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이탈리아·독일)등에 우수선수를 선발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축구협회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전남 U11, U14 대표팀을 파견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4-5학년 위주의 U11팀 16명,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U14팀 20명은 현지팀과의 교류경기는 물론 가고시마 U12, U15 AG국제컵에도 참가하고 있다.

김성민(여수미평초 감독) 지도자와 정언종(해남동초 감독) 지도자가 이끄는 전남 U11 대표팀은 지난 13일 일본 히가시 이티키팀에 4-0, 메이와팀에 3-1로 각각 승리를 거둔데 이어 14일 이시키다이 FC에 5-0, 스요유 FC에 6-1, 메이와 FC에 6-0으로 이기며 5연승의 가도를 달렸다.

15일에는 아수카 FC를 7-0, 히가시쿠시라 FC을 5-0으로 완파하며 7연승을 달리다 쿠와에 FC에 1-6으로 패했으나, 바씨 SC와 니시타니야마를 연달아 격파하며 교류전을 9승1패로 마무리지었다.

이영수(순천FC 감독) 지도자와 박완선(광양스포츠클럽 감독) 지도자가 진두지휘한 U14 대표팀은 조세이고교 U16팀에 1-3, 이쿠에이칸중학교에 2-3으로 연패했지만 같은 팀과 한번 더 맞대결을 펼쳐 각각 1-3 패, 3-1 승리를 거둔 뒤 니치난가쿠인 중학교와 2차례의 경기에서 1승1패를 기록하며 2승4패로 교류전을 마쳤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그동안 도내 우수 유소년 축구선수를 선발해 유럽으로 동계전지훈련을 보내오던 것을 이번에는 '아시아의 축구 강호' 일본 축구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전지훈련지를 변경했다"며 "우리 지역 우수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일본 현지팀과의 친선 교류경기 및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전남을 넘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16세 이효송, JLPGA 역대 최연소 신인상

16세 프로골퍼 이효송이 역대 최연소 기록과 함께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다.

18일 매니지먼트사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에 따르면 이효송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JLPGA 투어 시상식에서 신인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가 J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것은 2010년 안선주 이후 14년 만이다. 2008년 11월11일생으로 지난달 만 16세가 된 이효송은 역대 최연소 신인상 수상 기록도 세웠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으로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 선수권대회 2연패(2022, 2023년)를 달성하는 등 기대주로 성장해 온 이효송은 여전히 아마추어 신분이던 올해 5월 JLPGA 투어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살롱파스컵 당시 15세 176일로 J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새로 쓴 그는 이후 프로로 전향, 일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 데뷔 이후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나 JLPGA는 메이저대회 우승을 높이 평가하며 이효송에게 신인상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JLPGA 투어 신인상 받은 이효송 〈JLPGA 제공〉

안세영 "이기든 지든 말했을 것…배드민턴 레전드 되고 싶어"

"파리 올림픽 작심발언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던 안세영이 "이기든 지든 (비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등장한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을 두고 내뱉은 쓴소리와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팀의 상황을 알렸을 거라는 안세영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파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안세영은 "그렇지만 답변을 한 데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에서 우승했지만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한다.

안세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많은 축하를 받기보다는 질타도 많이 받았다"며 "내가 문제점을 말하게 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BWF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한 안세영 〈BWF 유튜브 채널 캡처〉

그러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며 한국 배드민턴을 위하는 마음에 쓴소리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배드민턴을 그저 즐기고, 전설적인 선수로 자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안세영은 "지금은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배드민턴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